

# “기다렸다, 호랑이들!”...KBO리그 내일 막 오른다



앤더슨

올해로 출범 41주년을 맞은 2023 KBO리그가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는 1일 오후 2시 LG 트윈스-kt 위즈(수원kt위즈파크), 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스(서울 잠실구장), NC 다이노스-삼성 라이온즈(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한화 이글스-키움 히어로즈(서울 고척스카이돔), KIA 타이거즈-SSG 랜더스(인천 SSG랜더스필드)의 대진으로 팀당 144경기 대장정의 첫발을 댄다.

KIA는 4월 1-2일 인천 SSG랜더스와 개막 2연전을 갖는다. 4-6일 수원에서 kt 위즈와 원정 3연전을 치른 뒤 7일 광주에서 두산 베어스와 홈 개막전을 치르는 일정이다. 개막전 선발 중책을 새 외국인 투수 손 앤더슨이 맡았다.

김종국 KIA 감독은 “구위, 제구력에 있어서 5명 선발투수 중 컨디션이 가장 좋다. 개막전을 이끌 수 있는 필승카드로 낙점했다”고 선발 이유를 밝혔다.

앤더슨은 KIA가 새 외국인 선수 연봉 상

팀당 144경기 6개월 대장정 KIA, SSG와 인천서 개막전 앤더슨 vs 김광현 선발 격돌 홈 개막은 내달 7일 두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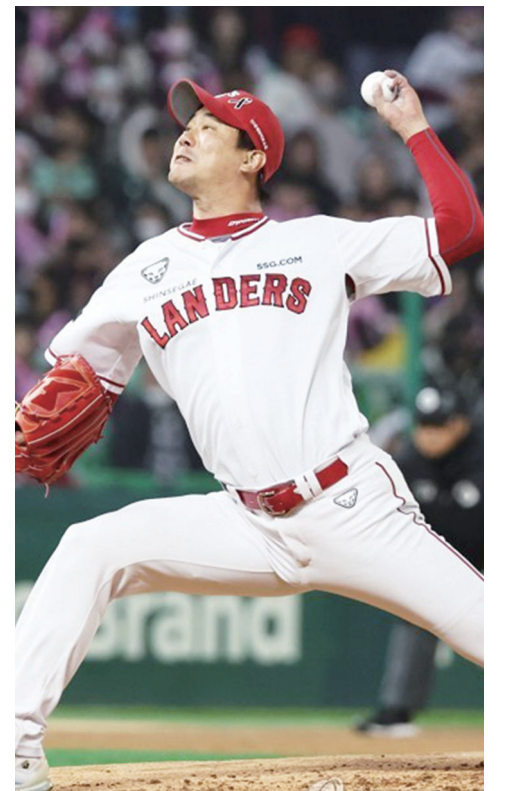
한선인 100만 달러를 채워줘 영입한 에이스로 개막전 선발로 일찌감치 내정, 시즌을 준비해왔다. 앤더슨은 MLB 통산 63경기에 등판해 3승5패 평균자책점 5.84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한 마지막 시범경기에서는 6이닝 5피안타 무사자구 10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KIA 타선이 상대할 SSG 선발은 좌완 김광현이다. 김광현이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 직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김광현은

2020년과 2021년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활약한 뒤 지난해 KBO리그에 복귀했고 13승 3패 평균자책점 2.13으로 호투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좌완 에이스지만 김광현이 정규시즌 개막전마다 고전했다는 점에서 KIA가 공략할만하다.

SK 와이번스 시절인 2014시즌 생애 첫 개막전 선발로 나서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 5이닝 5피안타 4실점(3자책) 하며 패전 투수가 됐고, 2016년에도 kt wiz전에서 4%이닝 9피안타 7실점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다.

KIA는 5선발은 신인 윤영철이 맡는다. 윤영철은 2019년 김기훈, 2021년 이의리에 이어 고졸 신인투수로 개막 선발로테이션에 진입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앤더슨-이의리-메디나-양현종-윤영철로 선발로테이션이 구성됐다. 임기영은 이준영, 김기훈, 최지민, 김대유와 함께 불펜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조혜원 기자



김광현

## “LG·kt·SSG·키움 4강... 전력 평준화 약팀 없어”

프로야구 해설위원 전망 4강6중 구도... 부상 변수

과연 LG 트윈스는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우승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

4월 1일 개막하는 2023시즌 KBO리그는 LG를 필두로 kt wiz, 키움 히어로즈, SSG 랜더스가 ‘4강’을 이룰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우세하다.

이순철(SBS스포츠), 박용택(KBSN스포츠), 민훈기(SPOTV) 등 프로야구 해설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 KBO리그는 ‘4강 6중’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4강 팀에서 부상 선수가 속출하고 6중 팀이 자유계약선수(FA)와 외국인 선수로 전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절대 크지 않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지난해 하위권이었던 한화 이글스,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등이 약팀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다.

이들 팀은 비시즌에 양의지(두산), 채은성(한화), 노진혁·유강남·한현희(이상 롯데) 등을 영입하며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보냈다.

반면 LG는 현재 마무리 고우석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kt에선 핵심 불펜 주권과 김민수가 각각 팔꿈치와 어깨를 다쳤다.

민훈기 해설위원은 “LG가 객관적인 전력 가장 안정된 팀으로 보인다”며 “키움은 늘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외국인 투수가 보강됐고 이정후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위원은 LG와 키움을 kt, SSG와 함께 4강으로 묶으면서도 “부상 변수가 생기고 겨울에 하위권이 전력 보강을 많이



프로야구 42번째 시즌 개막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10개구단 감독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산 이승엽·삼성 박진만·KIA 김종국·LG 염경엽·SSG 김원형·키움 홍원기·NC 강인관·KT 이강철·롯데 래리 서튼·한화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연합뉴스

해서 그 어느 시즌보다 예측불허의 치열한 시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위원은 “원래 한화, 삼성을 빼고 중위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봤었는데 오히려 시범경기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며 “한화는 전력이 굉장히 단단해졌고 삼성은 젊은 선수들이 바짝 잘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화(9승 3패 1무)와 삼성(10승 4패)은 지난 28일 끝난 시범경기를 1, 2위로 마감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지난 시즌 우승팀인 SSG를 중위권으로 넣고 KIA 타이거즈와 두산을 상위권으로 올렸다.

이 위원은 “SSG가 디펜딩 챔피언이긴 하지만 새 외국인 투수 예니 로메로가 (어깨 통증으로) 빠져있고, 선발로 돌아선 문승원 선수가 부상 없이 전체 시즌을 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펜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 주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분석했다.

반면 KIA에 대해선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문제 없이 투구하고 있고 불펜의 좌우 균형이 잘 맞다”며 “양현종, 이의리가 잘 활약해주고 (팔꿈치 수술을 받은) 장현식이 4월 중순에 복귀한다면 크게 밀리지 않는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택 해설위원은 kt를 우승 후보로 꼽으며 LG, SSG와 함께 3강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kt가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있지만 선발진이 워낙 좋아서 우승 후보로 꼽고 싶다”며 “키움은 3강에는 부족해도 가을 야구를 하기에는 충분한 전력”이라고 짚었다.

LG에서만 18년을 뛴 그는 진정팀에는 엄격한 잣대를 댔다.

박 위원은 “불펜이나 타선은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외국인 선발 두 명이 탄탄하지만, 국내 3선발부터 몰음표다”라며 “만드시 우승하는 팀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윤식은 지난해 후반기 좋은 활약을 했으나 전체 시즌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다”며 “이민호는 12승을 챙기긴 했으나 세부 지표가 좀 떨어졌고 5선발에 들어간 강효준은 아예 몰음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선수들은 올 정규시즌에 컨디션 난조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 위원은 “일부 선수들이 루틴이 깨진 뒤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반 각 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KIA 내달 7일 오프닝 이벤트 83년 당시 어린이 회원 초청

KIA 타이거즈가 오는 4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3시즌 오프닝 시리즈를 맞아 ‘TIGERS HERITAGE : 저력을 받고, 전력을 다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TIGERS HERITAGE : 저력을 받고, 전력을 다해’를 오프닝 시리즈 주제로 잡은 KIA는 1983년 V1 40주년을 맞아 선수단과 팬에게 명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올 시즌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취지다.

오프닝 시리즈의 시구는 첫 우승 40주년을 기념하며 ‘타이거즈 헤리티지 팬’ 시구로 꾸러진다. 우선 개막전 7일 시구는 1983년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 가입자인 김영대 씨가 한다. 시타는 올해 어린이회원인 박건후군(8)이 한다.

오프닝 시리즈 둘째 날인 8일 경기는 심재호 씨 가족이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오프닝 시리즈 마지막 날 경기는 1983년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인 노병국 씨가 한다. 노병국 씨는 82년부터 85년까지 4년 간 어린이 회원에 가입한 열혈 타이거즈 팬이다.

경기 전 팬 사인회 행사도 진행된다. 사인회는 선착순 100명이며,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이달의 영플레이어’ 광주FC 정호연 수상



정호연

광주FC 미드필더 정호연이 올 시즌 첫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했다.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 상’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남지역의 후원을 받아 2021년 신설한 상으로, 매달 K리그1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영플레이어’에게 주어진다.

올해 첫 영플레이어 상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총 4경기를 평가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활약한 정호연, 엄지성(이상 광주), 이태석(서울), 황재원(대구), 양현준(강원) 등 모두 5명이 후보에 올랐다. 이 중 정호연은 올 시즌 현재까지 전경기, 전시간 출장해 광주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다.

2000년생 정호연은 광주 U-18팀인 금호고 졸업 후 단국대를 거쳐 2022시즌을 앞두고 광주에 입단했다. 그해 36경기에 나와 1골 4도움으로 광주의 K리그2 우승에 일조했다. 올 시즌 역시 개막전부터 선발 출장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활약 중이다. /조혜원 기자

올해 바뀌는 KBO 규정

작년까지 10개 구단이 공평하게 72경기씩 소화했던 KBO리그 홈 경기 숫자가 올해부터는 조금씩 달라진다.

SSG 랜더스와 kt wiz,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는 2023시즌 전체 144경기 가운데 73경기를 홈에서 치르고, 71경기는 방문 경기로 소화한다.

나머지 5개 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는 올해 홈 71경기를 치르고, 내년 2024시즌에는 홈 73경기를 벌인다.

지난해 12월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연전을 폐지하며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 시즌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KBO리

체력 소모 주범 2연전 역사 속으로 ‘3시간 5분’ 목표로 스피드업 강화

그는 팀별로 16경기씩 벌이는데, 3연전을 4번(12경기) 하면 4경기가 남는다.

작년까지는 4경기를 2경기씩 공평하게 홈 경기로 나누다 보니 필연적으로 시즌 후반에는 2연전 일정이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남은 4경기를 ‘3+1경기’로 나누기로 했다.

지난해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 감독은 체력적인 부담을 이유로 2연전을 없애달라고 KBO 사무국에 요청했다.

홈 경기 숫자가 달라져 구단 수익에 차이가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속도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다음 도시로 떠나야 했던 폐

해가 워낙 컸기에 2연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기 진행 속도도 한층 빨라진다. 이번 시즌부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타자와 투수의 타격과 투구 준비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피치 클록’을 도입한다.

시범경기부터 2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로 나타난 ‘피치 클록’만큼은 아니더라도, KBO리그 역시 ‘더 빠르고 재미있는’ 야구를 위해 변화에 나선다.

지난해 스트라이크존 정상화와 스피드업 규정을 강화했던 KBO리그는 정규시즌 평

균 소요 시간(9이닝 기준)이 2021시즌 3시간 14분에서 2022시즌 3시간 11분으로 3분 빨라졌다. 올해는 3시간 5분으로 6분을 더 단축하는 게 목표다.

경기 중 마운드를 방문한 감독이나 코치는 좀 더 빨리 더그아웃으로 돌아가야 한다. 작년까지는 30초의 방문 시간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30초가 지난 뒤 곧바로 경기를 재개하도록 25초가 지난 시점에서 심판이 시간을 통보하면 감독이나 코치는 즉시 더그아웃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기 시간 단축을 독려하기 위해 KBO 사무국은 심판 고과에 스피드업 평가를 추가하고, 매월 관련 통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MLB의 ‘골드 글러브’를 본뜬 KBO 수비상도 신설된다. /연합뉴스